

이슈브리프

No. 2026-03

한중 정상회담(2026.1.5)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와 대응 방안

이동규

연구위원

2026-01-07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4~7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2025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의 한국 국빈방문의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국빈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제, 기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의지를 보여주면서 2025년 11월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관계를 회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한한령(限韓令)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한중 양국은 어떤 진전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를 통해서 현안들에 대한 한중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의 방향성은 맞지만,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한국에게 선택의 딜레마를 안김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동참 요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대중 견제와 압박을 완화할 뿐 아니라, 한중 간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일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는 중국이 향후에도 미중관계, 중일관계, 양안관계 등에서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요구와 압박을 지속할 뿐 아니라,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데에

한중관계를 이용할 것을 시사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균열을 피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유념하고 미국, 일본 및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한국의 외교노선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예방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한반도 안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때, 한일 간 과거사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재고(再考)해야 한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개선 등에서 중국의 실제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성급하게 한중관계의 회복에 매달리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경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

중국이 전후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유엔헌장 수호와 다자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역 정세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중국의 불만과 압박에 대응하는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것을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개최 평가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월 4~7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2026년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한중관계의 회복과 미래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1월 5일 오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 '디지털 기술 협력 MOU',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 등 14건의 MOU를 체결하며 한중 간 협력 확대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은 경제, 기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25년 11월

정상회담에 이어 한중관계를 회복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토대를 닦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보도자료를 비교해보면, 북한 비핵화, 서해 구조물, 한한령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한중 간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방문 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를 기대 성과의 하나로 공표했지만,¹ 이번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그런 성과를 보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² 중국 측 보도자료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은 물론 이러한 언급조차 포함되지 않았다.³ 한중 현안인 서해 구조물과 한한령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진전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의 방향성은 맞지만, 한국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어떻게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중국의 의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⁴ 정작 시진핑의 발언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요구와 압박을 내포하고 있었다.

시진핑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should stand firmly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and make correct strategic choices)"고 언급했다.⁵ 2025년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反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纪念日, 이하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중국은 자신을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규정하고 전후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해 왔다.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revisionist power)로 인식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미국 및 서방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시진핑은 2025년 5월 7일 러시아 전승절 연설과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연설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중국이 전후 국제질서의 수호자이며 중국의 길이 "역사의 올바른 편"임을 부각하고자 했다.⁶ 중국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은 "역사의 올바른 편"이 아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술한 시진핑의 발언은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서야 한다면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압박하는 것은 현재 국제 정세하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역 내 대중 견제와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 2026년 1월 3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마약 범죄를 명목으로 마두로(Nicolás Maduro Moros) 베네수엘라 대통령(이하 마두로)을 체포해 압송했다. 이 사건은 2025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의 내용대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본토 방어를 핵심으로 하는 서반구(Western Hemisphere)의 안보 우선기조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NSS는 미국이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맹들과의 집단방어(collective defense)를 강조하고 지역 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게 국방비 증액을 통해 적대 세력 억제와 중국이 설정한 ‘제1도련선(第一島鏈線; first island chain)’⁷ 인근지역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⁸ 즉,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본토 방어에 집중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 등 지역 내 동맹의 역할과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미국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는 지역 내 대중 견제와 압박을 완화하고 중국의 외교적·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모색해 왔다.⁹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동맹의 범위와 역할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를 통해 미 동맹체제 내 한국의 역할을 제한하고 미국의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 축소를 도모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둘째, 한중 간 역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일 협력을 견제할 수 있다. 현재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25년 11월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Takaichi Sanae)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사태 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영화 상영 금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이중 용도 물자 수출통제 등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한 한중 양국의 역사적 경험을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2025년 12월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내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미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¹⁰ 중국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시아판 NATO”라고 비난하며 경계해 왔고,¹¹ 그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한일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한일관계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지속성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¹² 이는 중국이 역사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이 현재 한일 간 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2025년 12월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쟁과 같이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나 한일 과거사 문제로 한중의 역사적 유대감이 부각되는 경우, 한국이 중국과 공동으로 일본과 대립하지 않더라도 한일 간 신뢰가 흔들리고 양국 간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대만 고립을 통해서 양안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2025년 12월 말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이하 라이칭더)을 대상으로 대만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총통 탄핵안이 대만 입법원을 통과했다. 야당이 입법원 정원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는 강경한 반중 정책을 시행했던 라이칭더 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과 라이칭더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작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서 라이칭더 중남미 방문 시 뉴욕 경유를 거부했고,¹³ 이는 대만 내에서 라이칭더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마두로 축출 사건이 중국에게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에서¹⁴ 향후 대만인의 안보불안이 더욱 높아진다면 라이칭더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2025년 4월과 12월에 실시된 대만해협 봉쇄 훈련, 대만문제와 관련한 대일본 압박은 대만해협 긴장을 높이고 그 책임을 라이칭더 정부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027년 4연임을 준비하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일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유산이다. 2026년 신년사에서도 시진핑은 “양안 동포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면서 대만과의 통일을 재차 강조했다.¹⁵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하기 전인 1월 2일에 중국 중앙방송(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대만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대만문제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입장 표명이 중일 갈등 구도에서 대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추진하는 만큼 대만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이 혼란스러운 대만 정치 상황에서 라이칭더 정부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안관계에서 중국이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국의 대응 방안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은 한중관계 회복과 발전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중관계의 외형적 복원을 공포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현재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요구와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협력 MOU가 실제 성과를 맺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설정하고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한미동맹과 한일관계의 균열을 피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인식하고 미국, 일본 및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게 선택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이 선택을 하지 않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주창하더라도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및 일본에게 한국의 외교노선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미국, 일본 및 유사입장국과의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정례화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만해협을 포함해 제1도련선 인근지역 방어에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협력 강화가 미국의 불신을 초래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를 넘어 대만해협으로 확대되는 명분이 되거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에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며 한반도 안보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제기할 때, 한일 간 과거사에 초점을 맞춰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재고(再考)해야 한다. 2025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간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가 한반도 안보와 남북관계 개선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의 선택을 강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 사건 이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볼 때, 북한은 정권 유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기보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가 북한 안보에 위협이 될 것임을 부각하며 내부 결집과 군사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4월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방종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미중협상의 지렛대(leverage)로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수사적으로 지지하며 북한과의 우호협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의 방종과 미중 협상은 시진핑의 정치업적으로 선전할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미북 대화를 지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대화 개선 등에서 중국의 실제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성급하게 한중관계의 회복에 매달리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요구는 더 강해질 것이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경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교안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만큼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는 한편, 소통 과정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을 미 동맹의 약한 고리(weak link)로 인식하는 중국의 대한국 회유 및 압박 시도를 완화해야 한다. 중국이 전후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유엔헌장 수호, 다자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도발이 지역 정세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한중 경제협력과 지역 안정을 위한 중국의 책임과 적극적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춰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것을 중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저자

이동규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다.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정치 전공으로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를, 중국 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구분야는 중국정치외교, 한중관계, 동북아안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일대일로: 보건 실크로드와 디지털 실크로드의 확장 그 함의”, “중국공산당의 정치개혁은 퇴보하는가: 시진핑 시기 당내 민주주의 변화와 지속성”, “중국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전략으로 본 시진핑 사상”, “냉전시기 한중관계의 발전요인과 특수성: 1972-1992년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이후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 등이 있다.

¹ “중국 국민 방문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청와대, 2026.01.02.,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mFZfxzKf>.

² “한중 정상회담 일정 등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청와대, 2026.01.05.,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sQZ38JxL>.

³ “习近平同韩国总统李在明举行会谈”, 中国外交部, 2026.01.05., https://www.fmprc.gov.cn/web/zyxw/202601/t20260105_11806708.shtml.

⁴ “李대통령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 계기될 것””, 중앙일보, 2026.01.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292>.

⁵ “习近平同韩国总统李在明举行会谈”, 中国外交部, 2026.01.05., https://www.fmprc.gov.cn/web/zyxw/202601/t20260105_11806708.shtml.

⁶ “习近平: 在纪念中国人民抗日战争暨世界反法西斯战争胜利80周年大会上的讲话”, 中国外交部, 2025.09.03., https://www.fmprc.gov.cn/web/zyxw/202509/t20250903_11701068.shtml

; “习近平在俄罗斯媒体发表署名文章”, 中国外交部, 2025.05.07., https://www.mfa.gov.cn/zyxw/202505/t20250507_11616610.shtml.

⁷ 도련선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섬들을 잇는 가상의 선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제기한 방위선이다. 1도련선은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베트남으로 연결된다.

⁸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2025.1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p. 24.

⁹ 이동규, “2025년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5.11.06., https://www.asaninst.org/bbs/board.php?bo_table=s1_1&wr_id=561.

¹⁰ “王毅同韩国外长赵显通电话”, 中国外交部, 2025.12.31., https://www.fmprc.gov.cn/web/wjzbzd/202512/t20251231_11796499.shtml.

¹¹ 项昊宇, “韩国政局牵动美日韩“同盟化””, 中国国际问题研究院 时事评论, 2024.12.24., https://www.ciis.org.cn/yjcg/sspl/202412/t20241224_9475.html; “2023年8月18日外交部發言人汪文斌主持例行

記者會”, 中国外交部,

2023.08.18., https://www.mfa.gov.cn/fyrbt_673021/jzhsl_673025/202308/t20230818_11128713.shtml.

¹² “Warming South Korea-Japan ties sends chill through China over potential US pivot, analysts say”, South China Morning Post, 2023.05.09.,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19833/warming-south-korea-japan-ties-sends-chill-through-china-over-potential-us-pivot-analysts-say?campaign=3219833&module=perpetual_scroll_0&pgtype=article.

¹³ “Donald Trump blocks Taiwan’s President Lai Ching-te from New York stopover”, Financial Times, 2025.07.28., <https://www.ft.com/content/21575bec-5cdd-47ee-9db2-3031c4ea7ca7>.

¹⁴ “China Social Media Hails Trump’s Maduro Move as Taiwan Template”, Bloomberg, 2026.01.0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1-04/china-social-media-hails-trump-s-maduro-move-as-taiwan-template>.

¹⁵ “国家主席习近平发表二〇二六年新年贺词”, 新华社, 2025. 12.31.,

<https://www.news.cn/politics/leaders/20251231/00c3feccf5424d3c90bccbb1519f47ae/c.html>.